

TOURISM SCOPE

2015. Vol. 34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Hallyeo National Marine Park viewing Ropeway, Tongyeong city, South Korea

Contents



02 Special Theme

호찌민 도시 탐구

06 City Inside

족자카르타, 고대 자바와의 조우

10 Focus On

울산 영남알프스 둘레길 걷기

14 Concept Travel

쇼퍼들의 천국, 세계 최고의 쇼핑몰

18 TPO People

TPO 차기 공동회장, 통영시장 김동진
'동양의 나폴리' 통영의 매력을 전하다

20 TPO News & Info

TPO 뉴스 & 정보

22 Zoom in Festival

TPO 도시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75개 도시 정부와 38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호찌민 도시 탐구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곳곳에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즐비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곳. 푸른 가로수가 늘어선 아름다운 풍경으로 '동양의 파리'라 불리는 도시. 이곳은 베트남 경제 문화의 중심지, 호찌민이다.

에디터 최현주 사진 (AB-ROAD) 자료실

호찌민 여행 정보

위치	베트남 남부 안남산맥의 남단에 있는 생자크곶 북서쪽 100km 지점에 위치
면적	2,099km ²
인구	7,396,446명(2010년 기준)
기후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로 1년 내내 무더운 날씨다. 최저 기온은 25°C(12월)이고, 최저 기온은 40°C(4~5월)이다. 5월~11월은 우기이며, 12월~4월은 건기다.
개요	베트남 남부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크로메인이 건설했다. 1954년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베트남(월남)의 수도가 되었다. 이때까지의 이름은 사이공.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근교의 자딘과 합쳐 호찌민으로 개편됐다.





신로마네스크 양식 노트르담 대성당 Notre Dame Cathedral

베트남 국민 70% 이상이 불교를 믿지만, 남부에는 상대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많아 성당 또한 많다. 호찌민은 프랑스 식민 시절 지어진 프랑스풍 건축물로 '동양의 파리'란 별칭이 붙었는데,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 대표적인 예다. 1862년부터 1880년까지 18년에 걸쳐 프랑스에 의해 건축됐으며 40m가 넘는 높이의 첨탑 2개와 성당 앞에 우뚝 선 성모마리아상이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치와 장미창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만든 붉은 벽돌 외관이 눈길을 끄는데, 건축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왔다. 전형적인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높게 치솟은 두 개의 첨탑과 광장의 성모 마리아상이 돋보인다. 하지만 정형화된 관광지 느낌으로 방문객이 많아 성당 특유의 스스러운 분위기는 느끼기 어려운 편이다.

찾아가는 법 호찌민 도심, 동코이 거리에 위치 주소 Ben Nghe, ward, 01 Distnct, Ho Chi Minh City
전화 +84-8-3822-0477

에펠탑의 걸작 중앙우체국 Central Post Office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팔(Gustave Eiffel)의 또 다른 걸작으로 프랑스 특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외관이 웅장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거대한 호찌민 주석의 사진이 보이고, 깊숙한 곳에는 우편 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분주하다. 고풍스러운 아치형 천장에는 호찌민 시의 대형 지도가 붙어 있다. 1층 중앙에는 1976년 이후에 발행된 우표를 판매하고 있어 우표 수집에 관심이 있다면 들러보자.

찾아가는 법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건너편 주소 Ben Nghe, ward, 01 Distnct, Ho Chi Minh City
전화 +84-8-3822-1677



호찌민 Ho Chi Minh

호찌민은 베트남의 정치가 이름. 혁명운동을 지속한 베트남 독립의 영웅이며 초대 정부 주석으로 취임한 인물로 현재도 '호 아저씨'라 불리며 베트남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이름에 그의 이름을 붙였을 정도면 그를 향한 베트남인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쇼핑을 부른다! 레로이 & 동코이 거리 Le Loi & Dong Khoi

도시에서 각각 여행자들로 붐비는 거리다. 레로이와 동코이 거리는 호찌민의 명동이라 강남이다. 시내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으로 고급스러운 브랜드 숍과 명품 숍, 앤틱 숍, 맞춤 의상실,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줄지어 있어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그 사이사이 시민극장과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고급 호텔 및 레스토랑, 카페, 퍼브, 클럽 등이 모여 있어 여행자가 찾는 필수 코스다.





호찌민 문화 1번지 시민극장 Saigon Opera House

호찌민의 중심, 동코이 거리와 레라이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건물. 19세기 말에 지어졌으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당시에는 오페라하우스로 쓰였다. 이후 독립된 베트남의 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베트남 시민의 문화생활 1번지로 오페라와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이곳은 행사가 있을 때만 티켓을 구매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평소에는 외관만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도보 5분 주소 7 Lam Son Square,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전화 +84-8-3829-9976

베트남의 택시

비가지가 유독 심한 동남아에서 택시 탑승은 썩 유쾌하지 않다. 하지만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의 택시는 비교적 양호하다. 물론 베트남에도 비가지 씨우는 택시가 있지만, 공인된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면 불쾌한 일에 직면할 일이 없다. 추천하는 택시 회사는 비나선(Vinasun). 여행자에게 양심적이고 친절하기로 유명하다. 호찌민을 비롯해 다낭, 나짱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본요금 1만4000동~ 홈페이지 [비나선 www.vinasuntaxi.com](http://www.vinasuntaxi.com)



홍정 필수의 만물상 벤탄 시장 Ben Thanh Market

호찌민 최대 규모의 벤탄 시장은 베트남에 관한 한 없는 것 없이 모두 모인 만물상이다. 좁은 길 사이로 오밀조밀 모인 4000여 개의 상점에서 의류, 신발, 가방, 식료품, 꽃, 그릇 등을 판매한다. 각종 이미테이션 화장품과 커피 제품이 인기다. 기념품을 사기에도 제격이지만 현지 사정에 낯선 여행자에게는 높은 값을 부르니 날카로운 홍정은 필수다. 오후 7시부터는 건물 내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와 야시장이 펼쳐진다.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각종 포장마차와 노점이 들어서 온 거리가 활기차다.

찾아가는 법 렉스 호텔(Rex Hotel)에서 도보 약 5분



중국식 바다의 여신 티엔하우 사원 The Thien Hau Temple

호찌민과 나짱 사원 모두 잔잔히 펴지는 향내음이 먼저 코끝을 자극하지만, 모시는 신도, 목적도, 성격도 모두 다르다. 호찌민의 티엔하우 사원은 19세기 초 배를 타고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무역을 했던 중국인들이 만들었다. 거친 파도에도 무사귀환을 기도하며 바다의 여신 '티엔하우'를 모신 것! 호찌민의 차이나타운인 쟈Lon(Cho Lon) 지역에 위치하며, 옛날 중국인들이 쓰고 입었던 도구와 의복 등을 정교하게 묘사해뒀다.

주소 710 Nguyen Trai Str, District 5 Cho Lon Ho Chi Minh City **운영시간** 06:00~17:30 **입장료** 무료





베트남전쟁의 역사 전쟁박물관 War Remnants Museum

박물관 테마에 관심이 없다면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호찌민의 전쟁박물관은 '봐야 할 곳'으로 분류해야 할 곳이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 전쟁박물관의 존재 목적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다양한 국적의 사진가

134명이 카메라에 담아냈고, 전쟁 때 사용했던 물품을 전시하고, 여러 모형으로 재현했다.

주소 28 Vo Van Tan Str, District 3 Ho Chi Minh City 전화 +84-8-2920-6325

운영시간 07:30~12:00, 13:30~17:00 입장료 1만 5000동



산책하고픈 초록 정원 빈꿔이 투어리스트 빌리지 Binh Quoi Tourist Village

짙은 녹음이 우거진 빈꿔이 투어리스트 빌리지는 호찌민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며 데이트하기 좋은 유원지다. 호수 위로 나룻배가 떠다니는 인공 정원, 베트남 시장을 재현해 거리 음식을 맛보는 뷔페식 레스토랑 등으로 이뤄졌다. 리조트 형태로 잘 꾸며진 숙박 시설까지 있어 호찌민 시내에서 벗어나 하루 쉬며 머물기에 좋다.

주소 1147 Binh Quoi 28 ward,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전화 +84-8-35566-020

운영시간 07:00~22:00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binhquoiresort.com.vn



타워 아래 호찌민 시내 사이공 스카이덱 Saigon Skydeck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기 위해서 찾는, 낮과 밤에 따라 색다른 광경을 볼 수 있는 하이 스톤! 높이 262m, 68층 규모의 비tex스코 파이낸셜 타워(Bitexco Financial Tower)에서 1초에 7m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올라가자. 49층에 도착하면 호찌민 시내가 펼쳐지는 사이공 스카이덱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360도 전망과 함께 스크린 터치로 시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소 36 Ho Tung Mau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전화 +84-8-39156-156

운영시간 일~목요일 09:30~21:30, 금·토요일 10:00~22:00 입장료 성인 20만 동, 어린이 13만 동 홈페이지 www.saigonskydeck.com

족자카르타, 고대 자바와의 조우

발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족자카르타엔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부처의 가르침이 새겨진 1500여 개의 부조를 볼 수 있는 동남아 최대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악마들이 하룻밤 사이에 지었다는 프람바난 힌두사원 등이 대표적. 족자카르타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디터 최현주 사진 (AB-ROAD) 자료실



족자카르타 여행 정보

위치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특별주의 주도
면적	3,169km ²
인구	653,124명(2006년 기준)
기후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고온다습하다. 계절을 우기와 건기로 구분, 우기는 10~3월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연평균기온은 25~28°C, 습도는 73~87%다.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인네, 인구 밀도는 매우 높다. 주민은 97%의 자바인과 소수인종으로 구성,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직도 이슬람 군주인 술탄의 공식적인 통치를 받는 유일한 주다.



족자카르타(Yogjakarta)에 오기 전까지

인도네시아를 잘 알지 못했다. 기껏해야 수도 자카르타의 현대적 도심과 보르네오의 원시 밀림이 공존하는 군도 정도로만 여겼고, 발리의 한갓진 리조트 몇 군데나 빼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족자카르타에 이르러서야 또 다른 인도네시아를 접했다. 개성 없이 번창하는 대도시나 휴양객이 들끓는 관광지가 아닌 신비로운 전통문화와 풍물한 전설로 기득한 인도네시아 자바인의 진면목을 마주할 수 있었다. 무너져 내린 힌두교 신전 프람바난 사원을 산책했고, 세계 최대의 불교 성지인 보로부두르 사원에 올랐으며, 술탄의 왕궁을 수리하면 일부와 축구를 즐기던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 01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로부두르 사원.
- 02 크라톤에서 만난 역대 술탄 초상화.
- 03 술탄 왕족의 흔적이 어린 크라톤.

소박하면서도 감동적인 술탄 궁전

발리에서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을 때 족자카르타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관광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발리의 밤문화와 달리 소박하면서도 한결 번화한(인도네시아 본토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족자카르타의 밤거리 를 뚫고 호텔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자정에 가까웠다. 짐을 풀고 부랴부랴 거리로 나가봤지만 시간이 너무 늦은 텏인지 족자카르타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말리오보로(Malioboro) 거리조차 인적이 드물었다. 응기종기 모여 앉아 통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선량한 청년들을 목격하는 정도로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밤에 만족해야 했다. 익숙한 서울의 풍경처럼 시끌벅적하지 않고 두련두련 노래 부르며 즐기는 모습이 낯설고도 정겨웠다.

이튿날 아침, 지난밤과 달리 거리는 단잠을 깨울 만큼 분주했다. 자전거를 개조해 만든 족자카르타의 전통 교통수단인 베차(Becha)가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을 실어 날랐고, 오토바이들이 폐지어 달렸다. 한낮의 땅溽을 피하려는 듯 사람들은 시원한 아침을 즐기며 경쾌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호텔이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분에 상점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말리오보로 거리를 둘러보며 족자카르타의 술탄(인도네시아는 20개 주에 각기 다른 왕족인 술탄이 지도자로서 존재한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크라톤 궁전(Kraton)까지 이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관광객은 술탄 왕궁 정문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입구를 통해 들어설 수 있는데, 너를 공원을 끼고 있는 그곳은 의외로 소박했다.

왕궁 내부를 둘러볼 수 없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 바틱(Batik)을 시대별로 둘러보고, <와양>이라 부르는 전통 그림자놀이 시연을 관람하며, 그림으로 족자카르타 왕조의 족보를 나열한 갤러리를 돌아 나오는 동안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화려한 치장이나 거대한 규모보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배어 나왔다.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노파의 앙다문 입술과 그림자 연극용 인형을 들어 보이는 사내의 의기양양한 미소, 그리고 왕궁의 수은등을 수리하는 인부의 집념 어린 눈빛은 발리의 연회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추던 무희들의 그것과 농도가 달랐다.

사랑의 전설, 프람바난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8세기의 힌두교 신전 프람바난(Prambanan) 사원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무너져 내린 채 8기의 거대한 석탑만 복원되어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거나 발굴 당시부터 훼손되어 있던 돌무더기는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중심에 우뚝 솟은 시바 사원은 그 높이가 47m에 이른다!). 그리고 놀랍게도 1000년의 세월을 더 지나온 단단한 돌무덤에는 전설 속의 사랑이 훌려넘쳤다.

족자카르타 사람들이 신봉하는 프람바난 사원의 전설은 이렇다. 아주 오랜 옛날, 펭귄국의 왕자 반동은 엄청난 마력을 지닌 사내였다. 그는 이웃 나라 왕을 암살하고 자 궁궐에 침입했다가 라라 종그랑(날씬한 아가씨라는 뜻) 공주를 만난다. 반동은 이 '날씬한 아가씨'에게 구애 하지만 공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거절한다. 하룻밤 사이에 찬디(석탑 모양의 인도네시아 사원을 일컫는 말) 1000기를 쌓으면 결혼하겠다는 것. 하지만 반동이 마술을 부려 찬디를 세워나가자 공주는 궁녀에게 아침이 밝아오면 신호를 보낼 테니 신전 하나를 무너뜨리라고 한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반동은 화가 나서 공주를 돌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석상을 1000번 째 찬디로 삼는다. 지독한 사랑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적국을 멸망시킨 반동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귀국하지만 이웃 나라 공주를 돌로 만든 사실이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만다. 분노한 왕은 '짐승 같은 놈'이라며 아들을 소로 만들어버린다. 프람바난 사원 한 켠의 라라 종그랑 신상이 밟고 선 소가 바로 반동 왕자라는 것!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구애를 뿌리치려 애쓰다 돌 속에 갇혀버린 공주가 아름다워서였는지, 돌로 가두고 싶을 만큼 사랑한 왕자의 애증이 안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족자카르타 사람들은 프람바난 사원을 '라라 종그랑 사원'이라 부를 만큼 전설과 그 신상을 좋아했다. 누군가는 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이 족자카르타의 젊은 연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데이트 장소라고 귀띔해줬다. 실제 프람바난 사원은 전설과 달리 200여 개의 찬디로 구성되어 있다.

프람바난 사원을 둘러싼 전설은 또 있다. 힌두교 신화에서 비롯된 '라미아나 이야기'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는 설화. 방대한 서사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인도의 왕자 라마는 모략에 걸려 아내 시타와 함께 숲 속에서 산다. 마왕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하자 라마는 시타를 찾고자 술한 모험을 감행하고, 결국 원숭이 왕



1



2



3



4



5

01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힌두 사원, 프람바난.

02 보로부두르 사원 전경.

03 프람바난 사원은 고대 힌두 건축의 백미다.

04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프람바난 사원의 부조.

05 보로부두르 사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만지우 로비.

등의 도움을 받아 라비나를 죽이고 시타를 구한다는 것. 이 설화 역시 프람바난 사원의 벽에 부조로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프람바난 사원을 관람할 때는 석실을 드나들 일이 많으므로 손전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들이 별로 없으므로 한낮에 찾을 예정이라면 챙넓은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는 센스도 필수다. 프람바난 사원을 돌아 나오며 폐허처럼 쏟아진 돌무덤을 뒤돌아봤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푸르스름한 이끼가 시선을 끌었다. 프람바난 사원의 돌들이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했다. 인도에서 온 승려도, 독일에서 여행 온 가족도 보로부두르 사원의 부처상이 느긋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듯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다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예배를 드리는 신전이라기보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보로부두르 사원에 오르다

맹렬을 고스란히 받으며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등이 땀으로 젖었다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최대의 불교 성지를 지나칠 수야 없는 일. 프람바난 사원보다 한발 앞서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로부두르 사원이 시야에 들어오자 걸음이 빨라졌다. 산스크리트어로 ‘산 위의 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처럼 산에 오를수록 그 규모는 분명해졌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1000년 동안 화산재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곳이라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언덕 위에 훑을 높이 쌓아 올린 뒤 세웠다는 불교 사원은 1000년의 세월 동안이나 잠자코 묻혀 있으면 지나치게 웅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가갈수록 20·30cm 가량으로 절단된 안산암 벽돌 100만 개를 접착제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가 혁를 내두르게 했다. 그 벽면에 새겨진 세밀한 부조는 아무리 펴펴해 보려 해도 혁를 내두르게 했다. 물론 모두가 석가모니의 수행과 가르침을 아름답게 표현한 부조였다.

8~9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19세기 초 자바 섬을 점령했던 영국군에 의해 발굴되었고, 4년여의 복구 공사가 진행되어 햇빛을 보게 됐다. 사각형 형태인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동서남북 방면에 똑같은 크기의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면 등신불이 놓인 72개의 스투파(Stupa)가 놓인 꼭대기 원단에 닿을 수 있다. 불상들이 저마다 다른 자세와 손 모양, 표정으로 조각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야가 더욱 넓게 트이더니 급기야 끝없는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시원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말 그대로 불가사의였다.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둔중한 불교 사원을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축조했는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왕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왕조의 사당, 승려들의 승방 혹은 만다라, 우주 삼계의 구상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족자카르타를 만나다

장엄한 보로부두르 사원과 달리 단출한 사원 안에 온화한 불상이 인상적으로 앉아 있던 멘둣(Mendut) 사원까지 꼼꼼히 둘러보고 다시 족자카르타 시내로 돌아왔을 때에야 낮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원보다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족자카르타의 건물 높이는 8층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불만을 토로할 일도 아니라고 여겼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자바의 후손들은 1000년 전의 규범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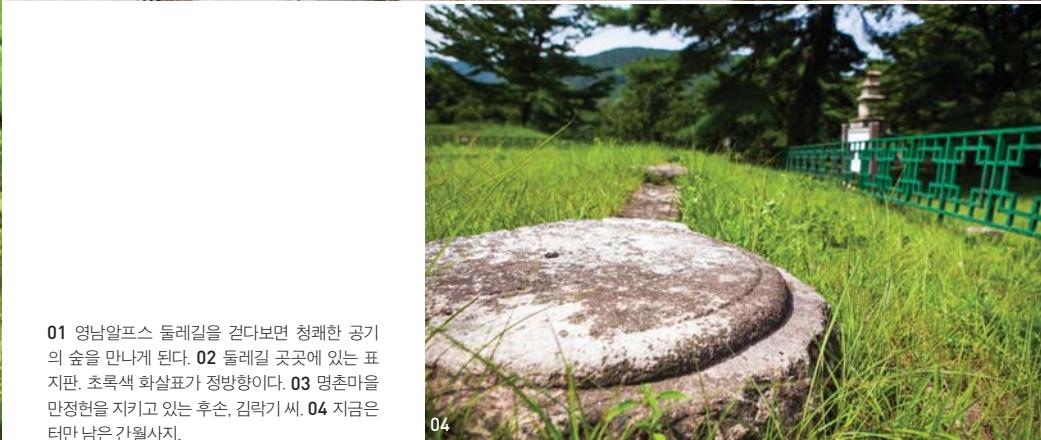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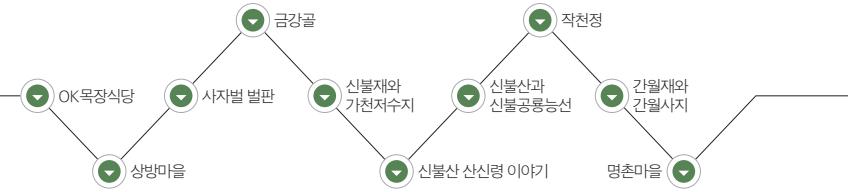
아니 굳이 흐트러뜨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공식적으로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에서 힌두교 사원과 불교 사원을 똑같이 존경의 대상으로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공존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문명이나 육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존임을 자바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말리오보로 거리는 여전히 북적거렸다. 오토바이와 배차가 수시로 거리를 가로지르며 달렸고, 상점마다 물건을 홍정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족자카르타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인 국립 가자마다 대학의 학생들과 파란 눈동자의 배낭여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갑론을박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갈수록 족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OK목장식당~후리마을 삼거리(16.8km)

영축산과 신불산, 간월산을 바라보며 걷는 구간. 맑은 저수지와 작은 마을이 곳곳에 있어 쉬엄쉬엄 산책하기 좋다.



장꾼들이 넘나들던 옛 고개

둘레길 1구간은 양산시 지산리와 울주군 삼남면 경계인 OK목장식당에서 시작된다. 영축산 등산로 입구를 지나 도로를 따라 걸으면 상봉마을에 닿는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아 예부터 풍족했던 곳이다. 금길을 따라 땅방울이 맷힐 때까지 걸으니 어느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가천저수지가 나타났다. 신불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1925년에 만들어진, 제법 큰 저수지다. 저수지 바로 앞에는 유서 깊은 고택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재를 지내기 위한 가옥이다. 이 지역 재력가였던 고종황제의 시종원부경(비서)을 지낸 송태관이 지은 재실과 밀양 박씨 문중 재실이 나란히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 뒤로는 신불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산을 보고 있으니 정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신불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라며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어느 촌부가 친구와 함께 언양장에 소를 팔고 신불산 고개를 넘고 있었다. 걷다보니 친

구는 없고 모르는 노인이 동행하게 되었단다. 자신만 따라오라는 노인의 말에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호랑이를 가까스로 피하게 된다. 다음 날, 앞서간 친구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촌부는 그제야 노인이 산신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저수지에서 가달고개(작천정)로 넘어가는 길은 산길로 이어져 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하얀 바위에 투명한 물이 흐르는 작쾌천이 나온다. 둑근 바위들이 움푹 파인 형상이 술잔 같아 보인다. 이 너럭바위에는 여러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정몽주 선생을 추모하는 모은대와 울산의 여류 시인인 이구소의 이름이다.

오래된 풍경 앞을 서성이다

도로를 따라 한참 걸었더니 등억온천단지 입구에 닿는다. 빼곡한 숙소 가운데 이방인처

럼 들어앉은 간월사지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간월사지엔 건물터와 축대, 보물 제370호 석조여래좌상, 2기의 석탑이 남아 있다. 간월사는 신라시대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세운 사찰로 창건 당시 통도사와 규모를 견주었지만 갑자기 기세가 기울면서 폐허로 전락했다. 남아 있는 불상을 가까이 보니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색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억온천단지를 벗어나니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어 걷기 좋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명촌마을에 들어섰다. 봄이 오면 새들이 모여들어 지저귄다는 뜻으로 명촌(鳴村)이라 이름 지었다. 명촌마을 초입에 있는 만정헌(晚定軒)이라 불리는 기와집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15세기 중엽 현감 김자간이 경주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세운 계림 김씨의 정각이다. 500년 역사를 지닌,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지붕 처마의 날렵하게 치켜 올라간 곡선이 아름답고, 기둥을 싸리나무로 세운 것이 독특하다. 1구간 걷기는 명촌마을에서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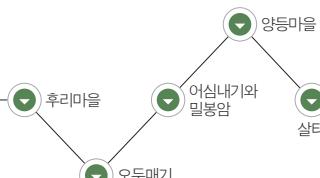
01 농업용수로 쓰이는 가천저수지.



01

후리마을 삼거리~석남사 입구(22.3km)

오랜 이야기가 있는 마을과 장꾼들이 지나다니던 옛길을 걷는 2구간. 풍요로운 땅과 부드러운 바람과 마주하는 길이다.



시골이 좋은 이유, 따스함

드넓은 논이 펼쳐진 후리마을에서 2구간이 시작된다. 마을로 들어서면 아름드리나무 아래 정자 몇 개가 놓여 있어 쉬어 가기 좋다. 근처 지화마을, 오산마을과 함께 독립투사가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이규천 선생의 후손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독립선언문의 필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윗마을까지 걷다보니 작은 사찰에 이르렀다. 우리 절도명사라는, 도평스님이 홀로 지키는 절이다. 이곳에선 부처님 진신사리와 티베트에서 넘어온 만다라 등을 볼 수 있다. 사찰에서 15분 정도 올라가면 마을의 식수원인 맑은 저수지가 나온다. 저수지 뒤에 우뚝 서 있는 박월산. 그 산의 품에 안겨 있는 마을이 더없이 포근해 보인다.

후리마을을 나와 30여 분 걸었을까. 버드나무가 많은 양동마을에 닿는다. 동네 입구엔 열댓 분의 할머니가 평상에 모여 있었는데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석남사에서 고개를 넘어 꽃가마 타고 시집온 이야기,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차마 친정에 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게으름뱅이 남편 때문에 논일, 집안일 하느라 청춘이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으신다. 할머니 한 분이 이 마을에 큰 인물이 있다며 비밀스럽게 말씀을 꺼내신다. 민속학자 송석하가 태어난 마을이라고. 송석하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는 데 힘쓴 인물이다. 마을 끝에 풍채 좋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250여 년 된 거대한 소나무에서 기품이 느껴진다.



숨어 있는 숲, 마음이 고요해지다

양등마을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밀봉암과 양등재를 만난다. 장으로 가는 길로 저잣거리에서 찌든 몸을 유유자적 걸으며 정화하기 좋은 길이다. 소설가 배성동 씨는 영남알프스의 길은 모두 언양장으로 통한다고 했다. 길 따라 인심이 난다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숲길을 스치고 도로를 따라 걸으니 살티마을에 닿는다. 예부터 전쟁을 대비해 화살을 만들던 곳이란 뜻의 '살티'라고도 하며 지금은 박해를 피해서 살 만한 곳이라는 뜻의 '살티'라고 불린다. 실제 1815년 을해박해와 1839년 기해박해를 피해 가톨릭 교우들이 이곳까지 숨어들었다. 나무가 울창해 숨어 지내기 좋았지만 맹수들이 득실거렸던 곳이다. 포졸에게 잡혀 죽는 사람보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긴 여정의 끝, 마을과 마을을 걸으며 읽고 듣고 스쳤던 풍경이 하나하나 소중해진다. 느긋한 걸음으로 가다 멈추길 반복하며 길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국, 길 위의 이야기는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란 걸. 길 위에 계속 하루하루를 덧칠해나가는 것이 삶의 과정이란 걸, 긴 걸음을 통해 알게 되었다.

01 양등마을에 기품 있게 서 있는 국수송. 02 보드라운 흙이 덮인 숲길. 03 숲길을 따라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다. 04 살티순교성지에서는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울산 영남알프스길 돌레길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양산, 밀양, 청도, 경주 등을 아우르는 총 240km의 힘방로. 이 중 울산 구간은 영죽산과 신불산, 간월산, 기지산, 고현산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77.3km 길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옛길, 험정한 계곡길, 고즈넉한 토담길, 수풀 우거진 목은 길 등을 이어 자연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살려 조성한 것이 특징. 1, 2구간 외에도 중선필마을에서 외와마을을 잇는 5구간이 가을에 걷기 좋다. 마을 곳곳 단풍나무가 가득해 계절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돌레길 위엔 표지판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 길을 잃을 걱정도 없다. 나무표지판의 초록 삼각형이 정방향 표시다.

찾아가는 법 기차 을산역에서 13번 버스를 타고 세광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OK목장식당에서 출발
홈페이지 www.yeongnamalps.kr

쇼퍼들의 천국

세계 최고의 쇼핑몰

쇼핑몰은 이제 쇼퍼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대중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더욱이 요즘엔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골고루 갖춘 쇼핑몰이 세계 주요 도시에 속속 등장하면서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먹거리와 쇼핑의 천국 오사카부터 대형 쇼핑몰이 모여 있는 쿠알라룸푸르, 러시아 극동지역에 자리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섯 도시를 대표하는 쇼핑몰을 소개한다.

에디터 (AB-ROAD) 편집부



화려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다 퍼시픽 플레이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최고급 쇼핑몰. 1층엔 명품 매장이 즐비하고 2층부터는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 매장이 가득하다. 벤틀리 등의 수입차 전시장과 최고급 영화관,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도 있다. 리조 칼튼 호텔과 연결되어 있어 쇼핑과 숙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쇼핑도 쇼핑이지만, 기막힌 인테리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최고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의 장관이 펼쳐진다.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Jakarta 전화 +62-21-5140-2828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acificplace.co.id



대중을 위한 대형 쇼핑센터 정다광창 상하이, 중국

하늘에서 옥구슬이 떨어지는 형상을 표현했다는 TV 수신탑 동방명주(东方明珠) 바로 앞에 위치한 쇼핑몰. 상하이를 상징하면서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에게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4만m² 가까이 되는 면적에 쇼핑을 비롯해 슈퍼마켓, 영화관, 레스토랑 등 복지시설이 압축돼 있다. 규모가 큰 만큼 구조도 복잡해 길을 잊기 쉽긴 하지만 계단보다 각 층을 웨이어스 띠처럼 연결하고 있어 오히려 쇼핑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자라, 망고, H&M 같은 글로벌 SPA 브랜드가 많아 젊은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지하에 대형 슈퍼마켓(Lotus Supermarket)이 있어 소소한 선물을 구입하기에도 좋다.

주소 中国上海市浦东新区陆家嘴西路168号 전화 021-6887-7888 운영시간 07:00~02:00 홈페이지 www.superbrandmall.com



자카르타 쇼핑의 중심 플라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명성이 자자한 백화점. 자카르타 시내 중심으로 통하는 모뉴먼트 살라맛 다방에 자리하며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다. 1층에는 루이비통과 버버리, 지미추 등의 명품 숍이 가득하고 2층부터는 의류점,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EX 플리자 몰과 연결되어 있어 쇼핑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주소 Jalan M.H. Thamrin No.28-30,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전화 +62-21-2992-000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lazaindonesia.com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백화점 클레버하우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백화점으로 세메노브스카야(Semenovskaya) 거리와 알류초카야(Aleutskaya)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지하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는데 간단한 선물이나 훈제 연어, 캐비아, 러시아 치즈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러시아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보드카 판매 진열대가 따로 있을 만큼 수십 개의 로컬 브랜드 보드카가 있어 고르는 재미 또한 쓸쓸하다. 2~3층에는 패션 브랜드 숏과 어린이 용품점이 있으며 최고층인 5층에는 푸드코트가 있어 간단하게 식사하기에도 좋다.

주소 Semenovskaya Str. 15 Vladivostok 전화 4232-301-205 운영시간 10:00~21:00 홈페이지 www.clover-vl.ru



부킷빈탕 최고의 쇼핑몰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부킷빈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 450개 숍이 7층 규모의 파빌리온을 꽉 채우고 있고, 명품부터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하루 종일 둘러봐도 지루할 틈이 없다. 4개 층에 걸쳐 팍슨(Parkson), 탕스(Tangs) 백화점이 연결돼 있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많아 쇼핑과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는 한식, 홍콩식, 대만식, 일본식, 이탈리아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주소 168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전화 603-2118-8833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avilion-kl.com

말레이시아 최대 복합 쇼핑몰 수리아 KLCC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상징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Petronas Twin Towers)' 내에 있는 대형 복합 쇼핑센터. 6층으로 이뤄진 쇼핑센터는 중앙 홀을 기점으로 양옆에 팍슨·이세탄 백화점이 중심을 잡고 있고, 샤넬, 구찌,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와 키노쿠니야 서점 등 다양한 숍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각종 부티크 브랜드와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 중저가 및 로컬 브랜드가 뒤섞여 있고, 각국의 레스토랑과 카페, 리빙, 영화, 레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갖추고 있다.

주소 Lot No. 241, Level 2, Suria KLCC, Kuala Lumpur 전화 603-2382-8448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uriaklcc.com.my





세계 최초 역사(驛舎) 백화점 한큐백화점 오사카, 일본

1929년 오픈, 하루 유동인구가 560만 명이 넘는 우메다 역과 연결돼 있다. 2012년, 7년간의 공사 끝에 확장 리뉴얼을 마치고, 일본 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로 거듭났다.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9층 이벤트 홀과 지하 1층 식품매장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몬슈슈도지마를(堂島口...) 등 예쁘고 맛 좋은 디저트로 소문이 자자한 식품매장은 백화점 오픈 시간 전부터 손님이 길게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1층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5%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 통역과 환전 등 해외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주소 大阪市北区角田町8-7 전화 81-6-6361-1381 운영시간 일~목요일, 일요일 10:00~20:00, 금·토요일 10:00~21:00

홈페이지 www.hankyu-dept.co.jp

방콕의 쇼핑 메카 시암스퀘어 방콕, 태국

시암스퀘어는 방콕 3대 쇼핑몰인 시암센터(Siam Center), 시암파라곤(Siam Paragon), 센트럴월드(Central World) 등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곳이다. 시암스퀘어의 진정한 매력은 쇼핑몰 반대편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소규모 부티크들, 아시아 전역의 최신 패션 트렌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고, 가격도 브랜드 매장보다 저렴해 지출에 민감한 배낭여행자도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방콕의 트렌드세터들이 몰리는 곳인 만큼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과 카페도 즐길 수 있다.

찾아 가는 법 BTS 시암 역에서 시암센터와 파리고 백화점으로 바로 연결된다. 마분홍은 시암센터 반대 출구로 나온 후 육교를 이용하면 된다.
운영시간 대부분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10:00~21:00



1등 식품관 한신 백화점 오사카, 일본

한큐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우메다 역과 연결돼 있다.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대중적인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지하 1층의 식품관은 오사카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들만 모여 있기로 유명하다. 노릇노릇 구운 군만두부터 다양한 찬합에 반찬이 가지런히 담긴 도시락과 달콤한 디저트까지 온갖 종류의 음식이 식욕을 자극한다. 선물용으로 좋은 간식도 많은데, '구테 데 로와(Gouter de Roi)'의 가토러스크가 가장 인기 있다. 버터를 발라 구운 타원형의 과자에 셀팅을 고루 뿐만 아니라 달달한 맛이 일품이다.

주소 大阪市北区梅田1-13-13 전화 81-6-6345-1201

운영시간 월·화요일, 일요일 지하 1~9층 10:00~20:00, 수~토요일 지하 1~5층 10:00~21:00

홈페이지 www.hanshin-dept.jp/hshonten

‘동양의 나폴리’ 통영의 매력을 전하다



TPO 차기 공동회장
통영시장 김동진

2016년부터 2년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공동회장에 선임된 대한민국 통영시장 김동진. 그가 전하는 통영시는
수만 가지 매력이 넘치는 최고의 여행지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들, 벽화마을
동피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한반도 남단에 있는 최고의 힐링
도시다. 작곡가 윤이상은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청정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프린지 공연이 열려 미향
도시의 낭만을 더한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및 자료 제공 TPO

통영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300년 통제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구국의 성지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사 도시’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음악의 거장 윤이상을 비롯해 문학의 대가 유치환, 김춘수, 박경리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했고, 통제영 12공방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570개의 섬을 품고 있는 바다의 땅 통영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도시로, 청정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을 맘껏 즐길 수 있습니다.

통영의 관광자원은 무엇이며,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통영을 제대로 여행하려면, 먼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삼도수군통제영’과 ‘12공방 전시관’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게 할 ‘통영국제음악당’과 다양한 장르의 문학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청마문학관과 김춘수전시관, 박경리기념관도 방문해보세요.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만한 해안선은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바다 위를 수놓은 섬들은 지상낙원을 연상시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유명한 자연 동백섬, 장사도와 소매물도는 통영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한려수도의 절경이 발아래 펼쳐지는 케이블카와 벽화마을로 재탄생한 동피랑도 적극 추천합니다.

지난해 통영을 방문한 여행객 수(국내·해외)와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통영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53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객선과 유람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도 매년 증가, 관련 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영은 수산물이 풍부해 수산시장과 생선회 전문 식당을 찾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 이용자도 크게 증가, 숙박업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 1인당 평균 여행 비용이 4만 5000원인 테 반해, 통영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1인당 평균 지출액 10만 원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통영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3년 전부터 중국 내 도심지 홍보관을 이용한 관광 홍보를 실시, 중국 대도시를 직접 방문해 관광설명회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올해 통영을 방문하는 중국인 여행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중국의 언론 매체와 여행사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영은 수산물 마케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통영 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를 2년마다 받고,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받아 현재 미국과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 백악관과 국무성, 농무성에서 통영 굴 요리 시식 행사를 개최했고,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3개 주에 있는 H-mart 5개 매장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통영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시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시는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오토캠핑장 등 레저 시설을 확충하고, 사계절 썰매장 루지(LUGE), 케이블카 파크랜드, 스텐포드 호텔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관광마케팅 담당을 신설, 해외여행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TPO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관광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통영의 주요 행사 및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통영을 대표하는 축제는 세계 4대 해전이자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축제인 ‘한산대첩축제’로, 매년 8월에 개최됩니다. 수산물을 주제로 한 통영 굴 축제도 있고, 소규모 축제 행사는 봉수골 벚꽃축제,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육지도 섬 개척제, 사량도 옥녀봉 등반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가 있습니다. 통영은 현대



예부터 통영은 수산업, 조선업,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의 불황과 날로 줄고 있는 어족 자원의 영향으로, 수산업도 위기가 가속돼 관광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음악의 거장 윤이상의 고향으로, 매년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시즌별로 다양한 공연과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프린지 공연이 펼쳐집니다. 삼도수군통제영의 야외무대에선 매주 승전무, 오광대, 조선수군 무예 시범 등의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와 함께 통영연극제, 통영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통영은 제7회 TPO 총회에서
차기 공동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16년부터 2년간 TPO 공동 회장에 선임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TA, UNWTO 등 국제회의 및 관광 행사에 적극 참여해 TPO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도시 상호간 관광 교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경제 분야 교류 확대 및 추가 회원도시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차기 공동회장 도시로, TPO와
회원도시를 위한 조언이나 제언
부탁드립니다.**

매년 TPO 총회와 포럼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회원도시에 전달하고, 회원도시 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도시의 민간 영역에서도 TPO에 대한 소속감과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도시를 방문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TP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구로 도약하고 모든 회원도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싼야, 중국

제7회 TPO 총회, 성황리에 개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사무총장 주환명)는 제7회 TPO 총회를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하이난 성 싼야시에 위치한 상그릴라 싼야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개국, 35개 도시의 대표와 한국의 벡스코와 중국의 CITS 등 민간회원 대표가 참석, 의안 심의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TPO 회원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첫날, 참석자들은 호텔에 도착해 행사를 등록하고,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둘째 날, 오전 9시 장치(Zhang Qi) 하이난성 인민회의 대표위원 겸 싼야시 당서기는 총회에 참가한 시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했고, 9시 30분 회원도시의 각 시장과 초청인사를 포함한 25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거행됐다. 개막식에 이어 세션1, 2, 3과 제26회 TPO 운영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세션1은 <트레블 임팩트 뉴스와이어>의 편집주간 임티아즈 마크빌(Mr. Imtiaz Muqbil)의 사회로 이해동 부산광역시 시의장과 존 콜도스키(Mr. Jhon Koldowski) PATA 특별자문관이 각각 'TPO의 협력과 발전방안', '세계관광산업의 추세와 TPO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에서 이해동 부산광역시 의장은 TPO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김동진 통영시장, 왕동(Wang Dong) 광저우시 부시장, 도미오 마쓰키조노(Tomio Matsukizono) 가고시마부시장, 로우령신(Low Leong Sin) 이포시 의회의장이 패널로 나서 TPO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션2는 회원도시들의 관광 마케팅 전략 성공사례를 발표, 한국의 고양시와 인천시, 베트남의 호찌민시, 중국의 싼야시와 BBC가 각각 성공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션3은 케이티 수(Katy Xu) BBC의 중화권 및 북아시아 지역 부사장의 사회로 천 야오(Chen Yao) 하이난성 관광국장과 월트 자미에슨 타마삿대학교 교수, 김광희 부산시 관광국장이 각각 '휴양지 관광산업 발전의 3가지 주요 방향',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지 개발에 따른 위험성',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행사 둘째 날인 29일 오전에는 시장원탁회의가 개최됐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참가자 약 2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TPO총회 본회의가 열렸다. 특히 본회의에선 2016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회장단 선출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장 도시에는 중국 광저우우 시, 공동 회장도시에 한국의 부산광역시가 재선출되었고, 통영시와 중국의 청두시가 처음으로 선출됐다. 회장도시 및 공동 회장도시는 2년간의 임기 동안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TPO의 대표로서 국제회의에 참석해 타 기구와 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싼야, 중국

TPO 베스트 어워드 2015 수상자 발표

이번 제7회 TPO 총회에서는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 활동 회원에게 시상하는 TPO 베스트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Award Category	Awarded Members
Best Marketing Campaign	Dalian, China
	Tongyeong, Korea
Best Print Advertisement	Tainan, Chinese Taipei
Best Broadcast Advertisement	Sanya, China
Best Festival/Event	Guangzhou, China
	Andong, Korea
Best Promotion CD	Zhengzhou, China
	Jung-Gu Busan, Korea
Best Tourism Brochure	Incheon, Korea
Best Website	Penang, Malaysia
	Yantai, China
Best Destination Manager	Dato' Haji Abd Rahim Bin Md Ariff, Mayor of Taiping, Malaysia
Best Tourism Industry Leader	Mr. Gu Xun-Cai, President of CITS Guangdong Co., Ltd, China
Best Public Relations Campaign	Changwon, Korea





정저우, 중국

주환명 TPO 사무총장, 정저우시 방문

주환명 TPO 사무총장이 4월 15일 중국 정저우시를 방문, 류동 부시장과 TPO의 활성화와 정저우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류동 부시장은 정저우시 정부를 대표해 주환명 사무총장 일행을 환영하며 정저우시 현황과 관광산업의 발전 상황을 소개했다. 정저우시는 황하문명의 발상지로, 페리리강 문화, 황제 문화, 상도 문화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저우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해 2014년 국내 관광객 7000만 명, 외국 관광객 45만 명이 도시를 방문했다. 류동 부시장은 “전체 관광객 수에서 보면 외국 관광객 수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TPO와 교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정저우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환명 사무총장은 류동 부시장의 안내로 정저우시 관광정보 서비스센터를 시찰했고, 정저우시 반공청 장소영 부주임, 외교반공실 장수성 부주임, 여유국 류해청 감찰실 주임 등이 함께했다.



방콕, 태국

방콕, 세계 베스트 관광도시 6위 선정

방콕이 <트래블플러스레저(Travel+Leisure)>가 조사한 세계 베스트 관광도시 6위에 선정됐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교토와 캄보디아의 시엠립 다음으로 방콕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 도심의 활기, 길거리 음식, 고대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 등이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방콕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트래블플러스레저> 조사에서 세계 베스트 관광도시 1위로 선정됐다. 올해는 교토가 1위로 올라섰다. 교토에 이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頓, 캄보디아의 시엠립 그리고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와 로마가 차례로 명단에 올랐다.

대한민국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8월 3일, 한국방문위원회는 “겨울에 개최하던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위축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올해 6회를 맞이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로, 국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호텔, 식당 등에서 참여,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참여 규모는 7월 31일 기준, 총 205개 업체, 2만 386개 업소로, 백화점과 면세점, 항공, 호텔, 공연, 교통 및 테마파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한다.



일본

2015년 상반기 일본 방문 외국인 수 역대 최다 914만 명 기록

2015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과거 최고 수치였던 전년 동기 626만 명 대비 46%(288만 명) 증가한 914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42.6%), 중국(116.3%), 대만(28.9%), 홍콩(64.2%), 태국(28.1%), 싱가포르(32.8%), 말레이시아(14.9%), 인도네시아(28.4%), 필리핀(50.8%), 베트남(58.3%), 인도(17.5%) 등 아시아 국가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에 부담이 없고, 쇼핑 매력이 커졌기 때문. 하반기엔 동아시아로부터 40척 이상의 크루즈선의 기항이 예정되어 있고, 7월 말 보이스카우트 세계대회(약 2만 5000명 방문)가 개최돼 올해 방일 외국인 수는 지난해 1341만 명을 크게 웃들 것으로 예상된다.



10 October 2015

Festival Calendar



일본 구마모토 | 9월 1일~10월 31일

구마모토 가을 축제

장소 구마모토 성 일대

오사카 성, 나고야 성과 함께 일본의 3대 성 중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 일대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 매년 봄 가을 축제 시즌이면 구마모토를 찾는 여행자들로 도시에 활기가 넘친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복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공연이 수시로 펼쳐지고,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등불축제인 미즈아 카리가 열린다. 대나무, 불, 물, 양초 등 구마모토에서 나는 소품을 활용한 약 5만 4000개의 양초와 등불이 이틀간 성 주변 곳곳을 밝혀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한국 경주 | 10월 8일~10월 11일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2015

장소 경주시 첨성대 잔디광장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을 주제로 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시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린다.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펼쳐질 예정. 6t 규모의 에밀레 모형 타종과 사물치기 체험, 신라문화 체험, 신라 간등회 재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에밀레전은 현존하는 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종. 축제에 참여하면 한국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덕대왕신종'의 가치와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 | 10월 8일~10월 9일

나카스 마쓰리

장소 나카스 일원

후쿠오카 최대 번화가 나카스에서 매년 열리는 전통 축제. 올해로 40회를 맞는다. 여성 중심의 축제로, 축제 기간 중 전통복 '하피' 차림에 머리띠 '온나 미코시'를 한 여성 참가자들을 나카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메인 이벤트는 수십 개의 팀이 각각 다른 테마의 가마를 지고 나카스 일대를 누비는 퍼레이드. 각 팀마다 독특한 복장과 분장을 선보여 여행자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 밖에 타이코 드럼 퍼포먼스나 오사코이 춤 무대, 나카스 미녀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여성이라면 참가자가 아니라도 축제 기간에 나카스 일대의 클럽과 바를 반값에 즐길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10월 22일~10월 25일

제20회 수라바야 국제 주얼리 박람회 2015

장소 수라바야 샹그릴라 호텔

동인도네시아 최대 보석 박람회. 동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 교역, 산업의 중심지인 수라바야에서 펼쳐진다. 수라바야는 다양한 보석 숨과 더불어 구매력 있는 인구가 많아 보석 박람회에 최적화한 도시. 수라바야 국제 보석 박람회에서는 질 좋은 원석을 최신의 디자인으로 다듬은 수준 높은 보석을 전시, 소비자에게는 안목을 높일 기회를 주고 제조사와 보급사에는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디아몬드, 금, 은, 진주 등의 보석은 물론 원석 가공 기계, 도구 및 장비, 패키지 등의 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베트남 호찌민 | 10월 8일~10월 10일

호찌민시 옥토버페스트 2015

장소 호찌민시 원저플라자호텔

올해로 23주년을 맞는 호찌민 옥토버페스트. 베트남-독일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독일의 10월제(Oktoberfest)를 본떠 만들어졌다. 호찌민시의 옥토버페스트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 중 10번째로 큰 규모.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금년에도 호찌민, 하노이 지역에서만 2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 최고 인기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소시지, 프레첼을 비롯한 독일 전통 요리와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선보일 예정. 지난해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안톤 쇼밴드가 다시 한번 축제의 흥을 돋울 것이다.



한국 부산 | 10월 23일~10월 24일

제11회 부산불꽃축제

장소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부산불꽃축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다. 축제 첫날인 23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전야 콘서트'가 열려 한국 인기 가수들이 축제 공연을 선보인다. 기존에 열리는 불꽃쇼 공연은 50분에서 35분으로 단축. 나머지 15분 동안 해외 초청 불꽃 팀의 쇼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연출 공간을 확대하고 진행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등 색다른 모습을 선보여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객들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1

November 2015

한국 창원 마산 | 10월 30일~11월 8일

제15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장소 마산항 제1부두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 축제.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마산항이 국화꽃으로 가득 차워질 예정이다. 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29일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관광객들의 눈과 코를 매혹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0일의 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과 데이트족 등 마산항을 찾은 방문객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 대전 | 11월 18일~11월 22일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

장소 우송예술회관

전 세계 청소년 영화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가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청소년 영화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01년 처음 열린 대한민국세계청소년영화제는 지난 14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학생 등 사회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작품을 매년 200여 편 소개하며 영화인을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올해는 영화 상영 외에도 영화 아카데미와 포럼, 워크숍과 오픈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등의 체험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일본 가고시마 | 11월 2일~11월 3일

가고시마 오하라 축제

장소 가고시마 일대

1949년부터 시작된 가고시마 대표 축제. 매년 가을을 열리는 오하라 축제가 올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남규슈 최대 기을 축제인 오하라 축제는 가고시마 시민 약 2만 명이 춤 행진에 참가하며 색다른 불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가고시마 최대 번화가인 덴모칸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민요 '오하라부시'에 맞춰 춤추는 모습은 놀랄 수 없는 불거리. 특히 춤 행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전통 축제를 만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 | 11월 22일~11월 23일

야쓰시로 묘켄 축제

장소 야쓰시로 일원

매년 11월 구마모토 현 야쓰시로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 400년 넘는 역사를 자랑, 일본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축제는 후쿠오카의 '하코자키궁 방생회'와 나가사키의 '수와야마 신사 오쿤치'와 함께 규슈 3대 축제로 손꼽힌다. 이를 동안 진행되는 축제 기간 중 첫날엔 묘켄궁에서 신이 가마를 타고 마을에 내려오는 '오쿠다리' 행렬이 시작되고, 둘째 날엔 미을에서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며 묘켄신사로 향하는 '오노보리' 행렬이 이어진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한 가마와 머리는 뱀, 봄통은 거북 형태를 한 환상의 동물 '가메' 등 일본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불거리를 만날 수 있다. 구마모토 현 전통 음식을 포함한 다채로운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Festival Calendar

베트남 다낭 | 11월 16일~11월 21일

2015 동아시아해양회의 및

제15회 장관급 포럼

장소 TBA

올해 5회를 맞은 동아시아해양회의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다. 2003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동아시아해양회의에서는 각국 고위 정부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동아시아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2000년 EAS회의에서 연안통합관리구역 중 한 곳이 된 다낭이 15년 후 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시에 비해 눈에 띄게 발전한 다낭의 모습을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부산 중구

11월 28일~2016년 1월 3일

제7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장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일원

올해로 7회를 맞은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가 11월 말 광복로를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는다. 부산 광복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부산의 중심기이자 최고 번화가. 최근에 다양한 불거리와 축제 등이 더해지면서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복로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세계축제협회에서 피너클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의 영광을 안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불거리를 제공한다.



12

December 2015

Festival Calendar

한국 울산 | 12월 31일~1월 1일

간절곶 해맞이 축제

장소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갈질곶 일대

한국 울산광역시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인 2015년 12월 31일부터 새해 2016년 1월 1일까지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은 매년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해돋이 명소. 올해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서는 새해 전날 저녁의 해넘이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송년 콘서트, 불꽃놀이, 새해 떡국 나누기, 신년 축하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이 행사에 맞추어 간절곶에 울산시 홍보관, 농특산물관, 신년 운세관, 신년 휘호관 등의 부스가 설치 운영되며, 행사장 주변에 위치한 '별빛체험관'에서는 화려한 은하수와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다.



중국 청두 | 12월 18일~12월 22일

2015 청두 홈엑스포

장소 세기성 신국제전시센터 3, 4번홀

제18회 청두 홈엑스포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두 세기성 신국제센터에서 열린다. 총 800여 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시 면적은 3만 m²에 달한다. 수백 종의 중국 유명 브랜드들이 참여, 방문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룰렛, 제비뽑기 등 풍부한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 업체는 홈엑스포 공식 마이크로 채널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전시 전 고객과 1:1 미팅을 할 수 있다.

대만 타이중 | 11월 7일~12월 6일

2015 신서 꽃바다 타이중 국제 꽃 테피스트리 페스티벌

장소 신서구 일원

매년 11월과 12월 사이 타이중 신서구에서 열리는 축제로 '살파경관녹비구'와 '경관초화구'로 구성된 약 35만 m²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녹비작물을 섭취하며 자란 해바라기와 황금빛 갈대밭이 만드는 눈부신 전원 풍경, 그리고 바람이 불면 파도처럼 흔들리는 코스모스 들판을 만날 수 있다. 원근과 고도의 대비 효과를 이용, 다채롭고 화려한 색채의 각종 풀꽃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3D 정원도 기대된다.



중국 싼야 | 12월 19일

제65회 미스월드대회 결승전

장소 싼야 뷰티크라운호텔

올해 8월, 미스월드기구와 뷰티크라운호텔은 양 그룹의 협력을 통해 올해 12월 19일 싼야 시에서 2015 미스월드대회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미스월드는 미스유니버스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현재 개최되는 미녀선발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올해는 세계 유명 스타와 가수들이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족지카르타 | 12월 7일~12월 12일

족지카르타 다큐멘터리 영화제

장소 TBA

2002년 처음 열린 동남아시아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도네시아의 다큐멘터리 영화산업 진흥과 대중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다. 영화제 기간 중엔 다양한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뛰어난 작품을 선정, 시상해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작품 제작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다큐멘터리상을 따로 마련, 젊은이들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거제 | 12월 31일

송년 불꽃 축제

장소 장승포항 일원

거제 장승포항에서 매년 12월 31일에 열리는 연말연시 축제. 불꽃놀이뿐 아니라 지역 가수 공연이나 희망편지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후 4시부터 식전 행사를 시작하는데, 민속놀이 체험과 노래 경연대회 등의 이벤트가 열리고, 다채로운 먹거리도 준비되어 개막식 전 미리 방문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는 새해 맞이 기운을 다운 후 시작된다. 국내에서 열리는 불꽃놀이 중 규모가 가장 축제로 약 20분 동안 거제 앞바다를 색색의 화려한 빛으로 물들인다.

TPO Members

75 city members, 38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CHINA

Chengdu Urumqi
Qingyuan Weihai
Dalian Yantai
Foshan Zhangjiajie
Guangzhou Zhaoqing
Hangzhou Zhe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THAILAND

Bangkok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MALAYSIA

Georgetown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Taiping

RUSSIA

Vladivostok
Irkutsk

KOREA

And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
Changwon
Chuncheon
Dae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PHILIPPINES

Manila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INDUSTRY MEMBERS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ntional Sanya Co., Ltd.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U.S.A

MCM Group Holdings Ltd.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No.7 Jonghabundongjang-ro, Yeonje-gu, Busan 47500, Korea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www.aptpo.org>